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I 사항/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파월 연준의장 발언 등으로 하락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6일 (목) 미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파월연준 의장의 '시장 개입 의사 없다'는 발언 등 파월 풋 기대감 소멸 등의 요인으로 주요 기술주 및 반도체주 중심으로 급락한 결과 3대 지수는 하락 마감 (다우 -1.73%, S&P500 -2.24%, 나스닥 -3.07%).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 이후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와는 협상에 착수하는 가운데 중국에게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본격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 구도로 관세 전쟁 국면이 이동하는 모습. 실제로, 전일 미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하락을 유발했던 배경 중 하나는 엔비디아의 H20 칩 등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였음.

금번 수출 제한으로, 엔비디아는 1분기 55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발표함에 따라 주가는 6.8% 급락, 반도체 수출 우려 부각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1% 하락. ASML(-7.1%)은 관세 불확실성으로 부진한 1분기 수주액 전망치(39.4억 유로 vs 컨센 48.9억 유로)를 언급, AMD도 대중 수출 규제로 인해 8억 달러 규모의 손실 추정. 1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하며 기업들의 어닝 콜에서 관세 관련 부정적인 코멘트가 야기할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

한편, 미국 3월 소매판매 지표는 전월 대비 1.4% 증가하며 전월치(0.2%)를 큰 폭 상회, 트럼프의 관세 인상 계획 발표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에 소비자들이 선제적으로 구매를 늘린 점이 금번 지표 호조의 배경으로 풀이.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판매가 3월 한 달 동안 5.3% 급증한 점이 주된 원인. 다만, 관세로 인한 단기적인 소비 급증 영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금번 소비 지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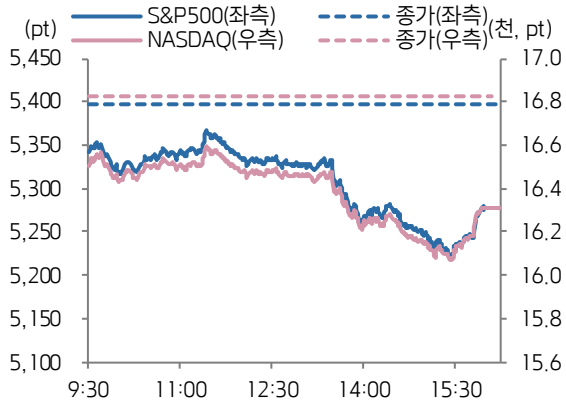
미중 강대강 대치가 지속됨에 따라 증시 입장에서는 파월(혹은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던 시기였음.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까지 파월 풋 기대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 그는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향후 발표될 데이터를 확인하며 대응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통해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다고 언급. 이는 파월풋을 기대하던 증시 입장에서는 하락 재료의 명분으로 작용.

결국, 반등의 트리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 트럼프 혹은 파월 풋 두가지 기제가 단기적으로 작동하기 힘든 상황인만큼 뚜렷한 방향성을 구축하기보다는 당분간 관세 뉴스플로우에 따른 등락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약보합 출발하였으나, 이후 엔비디아 H20 대중 수출 규제 강화, ASML 관세 정책 불확실성 점증에 따른 수주 부진 등이 악재로 작용하며 외국인 중심으로 매도세가 재차 출회된 결과 후반부 낙폭 확대하며 양 지수는 하락 마감 (코스피 -1.21%, 코스닥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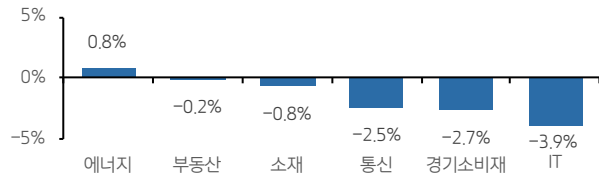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미중 무역 분쟁 우려 점증에 따른 전일 미 증시에서의 반도체주 급락을 반영하며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 다만, 해당 재료는 일부 전일 반영되었다는 인식 속 장 중반부 이후 낙폭을 회복하는 흐름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 전반적으로 관세 이슈에서 벗어나기 힘든 장세인만큼, 개별 모멘텀을 가진 일부 기업 위주로 종목장세 흐름이 금일에도 연출될 것으로 예상.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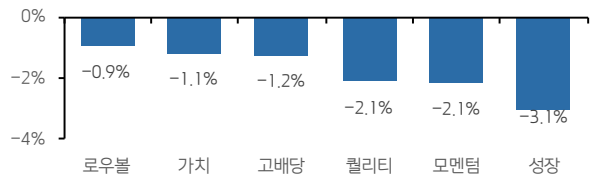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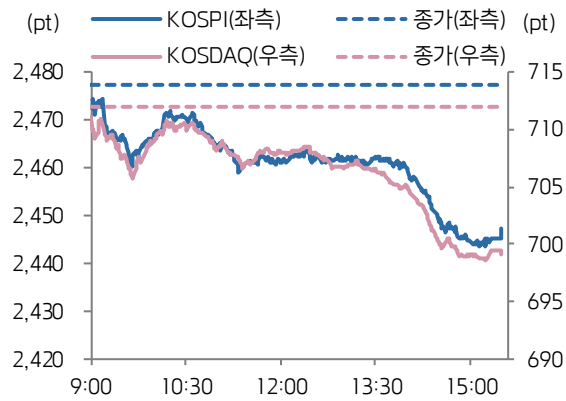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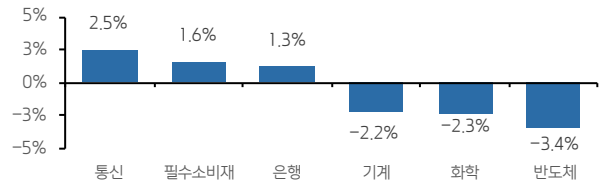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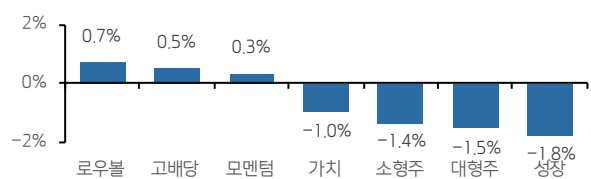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194.27	-3.89%	-22.34%	GM	44.22	-0.72%	-16.78%
마이크로소프트	371.61	-3.66%	-11.66%	일라이릴리	734.90	-2.94%	-4.64%
알파벳	153.33	-1.91%	-18.91%	월마트	91.19	-2.96%	+1.21%
메타	502.31	-3.68%	-14.13%	JP모건	229.61	-1.51%	-3.13%
아마존	174.33	-2.93%	-20.54%	엑손모빌	104.19	+1.06%	-2.28%
테슬라	241.55	-4.94%	-40.19%	세브론	135.36	+0.61%	-5.51%
엔비디아	104.49	-6.87%	-22.18%	제너럴일렉트릭	91.19	-3%	+1.2%
브로드컴	174.61	-2.43%	-24.46%	캐터필러	290.14	-1.12%	-19.73%
AMD	88.29	-7.35%	-26.91%	보잉	156.47	+0.61%	-11.6%
마이크론	69.33	-2.41%	-17.51%	넥스트에라	65.64	-3%	-7.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447.43	-1.21%	+2%	USD/KRW	1,415.80	-0.8%	-3.84%
코스피200	323.53	-1.4%	+1.8%	달러 지수	99.28	-0.93%	-8.49%
코스닥	699.11	-1.8%	+3.08%	EUR/USD	1.14	+1.04%	+10.09%
코스닥150	1,141.32	-2.55%	+1.02%	USD/CNH	7.30	-0.41%	-0.53%
S&P500	5,275.70	-2.24%	-10.3%	USD/JPY	141.88	-0.93%	-9.75%
NASDAQ	16,307.16	-3.07%	-15.55%	채권시장			
다우	39,669.39	-1.73%	-6.76%	가격	DTD(bp)	YTD(bp)	
VIX	32.64	+8.37%	+88.13%	국고채 3년	2.332	-6.5bp	-26.3bp
러셀2000	1,863.48	-1.03%	-16.44%	국고채 10년	2.620	-4.2bp	-25.1bp
필라. 반도체	3,857.17	-4.1%	-22.55%	미국 국채 2년	3.770	-7.5bp	-47.2bp
다우 운송	13,123.31	-2.24%	-17.44%	미국 국채 10년	4.277	-5.6bp	-29.2bp
상해종합	3,276.00	+0.26%	-2.26%	미국 국채 30년	4.739	-3.9bp	-4.3bp
항생 H	7,779.01	-2.55%	+6.71%	독일 국채 10년	2.509	-2.5bp	+14.2bp
인도 SENSEX	77,044.29	+0.4%	-1.4%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4,966.50	-0.08%	+1.44%	WTI	62.47	+1.86%	-11.39%
MSCI 전세계 지수	803.10	+0.32%	-4.54%	브렌트유	65.85	+1.82%	-11.78%
MSCI DM 지수	3,522.80	+0.25%	-4.99%	금	3,346.40	+3.27%	+24.3%
MSCI EM 지수	1,070.26	+0.95%	-0.49%	은	32.98	+2.11%	+12.78%
MSCI 한국 ETF	54.06	-0.59%	+6.23%	구리	468.55	+1.29%	+16.37%
디지털화폐				BDI	1,263.00	-1.48%	+26.68%
비트코인	84,308.09	+0.35%	-10.04%	옥수수	491.75	+0.46%	+4.91%
이더리움	1,573.58	-1.33%	-52.98%	밀	561.00	+0.9%	-1.49%
				대두	1,050.25	+0.36%	+1.5%
				커피	373.80	+1.81%	+21.1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4월 16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